

광주의 기억과 인권공동체를 향한 연대

이용섭[광주광역시장]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권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과거의 역사적 기억을 교훈 삼아 인권도시로 발전해 온 광주의 경험과 새로운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억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발표는 2020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주제인 ‘기억과 공동체, 인권도시의 미래’와 직접 연결되기도 합니다.

기억을 계승해 가는 인권도시 광주

오늘의 ‘인권도시 광주’는 수많은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권도시 광주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인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은 특별한 해입니다. 1980년 5월, 10일 동안의 항쟁을 통해 광주시민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것은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 체계인 인권과 민주주의였습니다.

그 이후 광주시민들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1998년 5월에는 아시아 각 나라 200여 개의 NGO가 협력하여 만든 ‘아시아 인권헌장’ 선언대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2011년에는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5·18은 인권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고, 광주는 대표적인 인권도시가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장치를 만드는 작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인권규범인 ‘인권헌장’과 ‘인권지표’ 제정, 인권마을 프로젝트 운영,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등이 대표적입니다. 광주시의 인권정책들은 국내 다른 도시들로 확산되어 나갔고 국제사회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2012년 8월, 제9차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는 ‘인권도시’를 정식 연구 주제로 채택했습니다. 2013년 9월, 제24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결의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의 인권정책은 2019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에 우수사례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5·18광주정신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처

인권도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해

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증유의 삶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맞서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인권진영의 최대 과제입니다. 광주는 인권, 민주주의, 연대를 주요 가치로 하는 ‘5·18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총력 대응입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 본부와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체제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의 자원을 결집해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대응입니다. 재난의 고통은 동등하게 오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9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피해지원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실직자, 중·고·대학생 등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공동체 연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병상이 부족한 대구시에 광주의 병실과 의료진을 제공해 환자를 치료하는 ‘병상연대’를 실천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광주시민들은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정신을 발휘했습니다.

넷째,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치료체제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완치자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코로나19 온라인 후유증 극복센터’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치 이후에도 겪는 후유증과 심리적 고통을 극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 10년, 그 이후 계획(인권 연대 및 인권교육)

인권도시는 인권의 가치에 공감하는 모든 지역이 연대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광주시는 국내적으로는 인권도시협의회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 공동의장과 ‘유네스코 아태차별반대도시연합’ 의장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0년째를 맞은 세계인권도시포럼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가 공동주최 기관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UN의 대표적인 인권기구의 공동참여를 계기로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인권도시를 향한 국제 간 연대를 보다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단위 인권보호체제 강화 전략인 ‘인권의 지역화’를 위한 파트너십에 UN기구 차원의 지원과 공동실천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합니다.

광주시는 인권도시 간의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보다 실천적인 인권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 인권도시 2030 실천의제’를 제안합니다. 2030 실천의제는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강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위한 공동의 실천의제 개발, 인권문화 향상을 위한 국제적 기준의 인권교육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2021년부터 ‘광주국제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할 것입니다. 세계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정책 개발, 인권에 기반한 도시발전 전략 수립 등을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UN OHCHR, UNESCO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2011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시작된 이후, 인권연대를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할 인권과제도 많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와 신종 감염병 등과 같은 재난 상황이 인권을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감염병이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파괴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는 지난 7월 ‘기후 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하는 내용의 ‘광주형 AI-그린뉴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의 3대 전략으로 첫째, 전력부문을 100%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여 시민 모두가 녹색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녹색전환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둘째, 3천만 그루 나무심기와 도시공원조성, 생활폐기물 100% 자원화 등을 통해 기후안심도시를 실현할 것입니다. 셋째, 청정공기 산업과 환경융합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환경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은 103개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행정기관 등이 참여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광주시는 AI 기반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여 누구나 기후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후안심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억을 공유하는 인권연대

도시가 경험한 역사적 기억을 인권도시 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권연대는 각 도시가 걸어온 인권의 경험을 인류의 공통 기억으로 만

들어가는 역사·문화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광주시는 5·18의 기억이 담긴 역사적 장소를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새로운 감성으로 인권을 접하고, 인권의식을 키워가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5·18사적지를 연결한 오월길을 여행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문화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18 당시 인권침해 장소인 옛 광주교도소를 ‘민주인권파크’로 조성해 인권교육과 국제인권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각 도시들이 간직하고 있는 인권의 기억, 역사, 경험 등을 담은 기록과 문화예술 작품을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해 공유하는 일은 인권에 대한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인권연대의 지평을 넓혀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인권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다 다양하고 실천적인 인권연대가 필요합니다. 광주시는 국제기구,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지방정부, NGO 등과 함께 이러한 인권연대를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포럼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